

나주시, 농업 부산물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속도낸다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국책과제 공동 수행...부산물 재활용 90% 목표

나주시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에 참여해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국책사업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배, 매실, 오미자 등 과실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표준 공정 모델 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 전환', '제품화 및 사업성 분석' 등 미래식품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센터는 원료 표준화와 현장 실증, 농축액·감미료 대체제·분말·음료 등 시제품 개발, 산업화 소재 표

준화, 경제성 분석 등 사업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센터는 광동제약, 농협경제지주 식품연구원, 제너럴바이오, 대동엔지니어링, 경북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등 총 7개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사업비 79억원 전액 국비 예산이 투입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특히 재활용률 90% 이상을 목표로 한 '제로웨이스트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고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 및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공모사업 선

? 푸드업사이클링
농축식품 가공 부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펫푸드, 비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을 통해 역점 추진해온 푸드업사이클링 개념과 유사하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 농협식품R&D 연구소, 광동제약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의 푸드업사이클링 산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R&DB 및 실증·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식약처 HACCP 및 GMP 인증을 받은 대형 생산설비를 갖춘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와 2026년 완공 예정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업화 경쟁력을 확보



농촌진흥청 주관 국책사업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나주시 제공)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책과제 및 민관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도를 극대화해 나주를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선거빵에 경비행기 할인...장성군민 자발적 투표 독려 만발

백운카페 '6·3빵' 한시 판매
한양항공 10% 할인 항공 체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전남 장성군민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북하면에 소재한 백운카페는 최근 선거 전후로만 판매하는 한정판 선거빵을 출시했다.
오는 6월3일 투표일을 의미하는 숫자 '6·3'을 빵에 그리고, 투표도장 모양의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룡면에서 경비행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한양항공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만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체험비를 할인해 준다.
합법적인 투표 참여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기존 이용료 7만원에서 10% 할인된 6만3000원에 경비행기를 탈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제21대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해 선거빵을 출시한 장성 백운카페 국영철(맨 왼쪽) 대표와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경비행기 체험 할인 이벤트를 약속한 ㈜한양항공 조병승(오른쪽) 대표. <장성군 제공>

함평천지한우 26~30일
온라인 20% 할인 판매

함평군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프리미엄 지역 특산물인 함평한우 소비 촉진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함평군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함평천지물'이 오는 30일까지 '5월의 감동식탁' 기획전을 열어 함평한우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중심 소비가 집중되는 5월에 맞춰 함평군과 함평축협이 협력해 내수 경기 활성화,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기획전 기간 동안 함평축협축산물유통센터가 제공하는 행사 상품을 2만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쿠폰(1인당 3매, 최대 5만원 한도)을 제공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영화관 영화 보는 날' 할인 행사

연말까지 군민 관람료 50% 할인
강진군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강진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날'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여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000~3500원에 반값으로 영화 관람 가능하다.
또 이번 행사 기간에는 영화관 매장에서 판매하는 팝콘·음료세트도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관람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보는 날'은 오는 6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시네마데이와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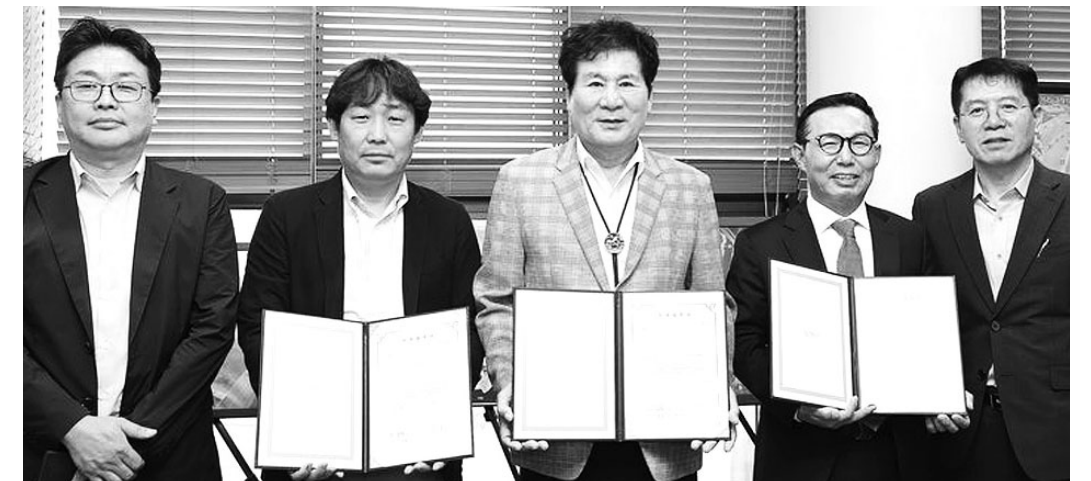
석, 한글날, 성탄절 등 주요 공휴일을 포함해 총 16일간 운영된다.
할인은 당일 현장 선착순 예매를 통해 적용되며 강진군민임을 확인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편성할 예정이다.
관람은 1일 2관 5회차 운영을 기준으로 하루 440명 관람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배움캠프 열린다

회차별 20팀씩 40팀 모집

화순군이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배움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이 세계유산 고인돌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좌표를 따라가는 고인돌 유적 탐방'을 비롯해 반달돌갈을 직접 만들고 이를 이용한 채소 수확하기, 암각화 문패 만들기 등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

으로 접수한다. 회차별 20팀씩 총 40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세계유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번 캠프는 책에서만 접하던 고인돌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하반기에 '화순 고인돌 캠핑왕', '별빛 문화공연'까지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군청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서준 최명현(왼쪽 두번째) 대표, 천복규형2공장 김순곤(왼쪽 네번째) 대표와 13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함평에 '자동차 부품 기업' 두 곳 온다

빛그린산단에 132억원 투자유치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두곳으로부터 13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함평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서준, 천복규형2공장과 13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내 1만4007.6㎡ 부지에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과 엔진 접합부품 제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서준과 천복규형은 현

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부품 생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 공장을 건립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협약이 두 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조미김 가공업체와 수출 활성화 간담회

장흥군이 장흥 무산김의 유럽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소재 조미김 가공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는 장흥 무산김의 유럽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가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친환경 김'으로서 장흥군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수립과 홍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흥군은 현재 해조류에 대해 관심이 낮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인증



김성(가운데) 장흥군수가 조미김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무산김의 유럽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을 취득한 친환경 김을 전략 상품으로 선보이며, 친환경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반려식물 키우기로 고독사 예방 나선다

중장년층 분기별 40명씩 선정
120가구 대상 정서 회복 도모

나주시가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정서 돌봄과 일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최근 어울림센터에서 이웃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반려 식물 키우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연말까지 분기별 40명씩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22일 체험행사에는 40명이 식물(크루시아) 키트로 반려 식물 키우기 체험과 고독사 예방 퍼포먼스에 참여해 '나주시 고독사 제로' 슬로건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올바른 식물 키우기 방법과 일상 속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활용법 등을 공유했다.



나주시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정서 돌봄과 일상생활에 활기를 위해 식물 키우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반려 식물은 정서적 안정과 함께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 치유와 고독사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